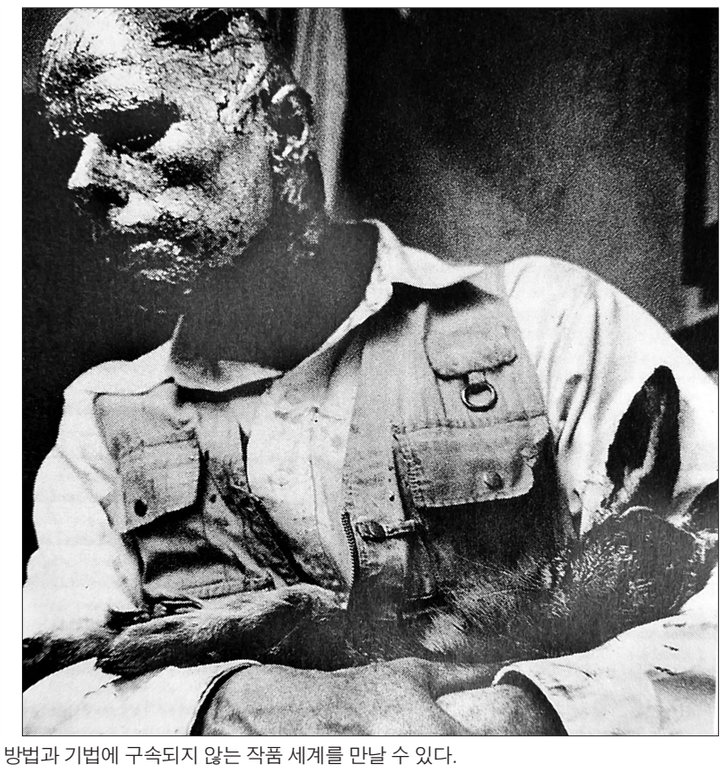
예술과 현실은 不二… "우리 모두가 예술가"

禪과 현대미술
⑲ 요셉 보이스
(Joseph Beuys)





요셉 보이스의 작품 '피아노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1966, 사진 왼쪽)' 과 '죽은 토끼에게 작품을 누가 설명할 것인가(1965, 사진 오른쪽).' 표현 방법과 기법에 구속되지 않는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많은 청중이 모인 강당에서 한 예술가가 예술에 대하여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사회, 정치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그의 이러한 강연은 전 세계를 돌며 진행됐다.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독일)는 예술과 예술가, 사회, 정치, 철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천재예술가였다.

젊은 시절 삶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보이스는 2차 대전에 참전하며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된다. 비행기 부조종사로 소련군과 싸우던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며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자신의 예술의 토대가 되며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여 많은 책을 탐독하게 되는데 철학, 신화, 역사, 미학, 정치, 사회학 등 다양한 방면의 책들을 통하여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아간다. 특히 그가 20대에 처음으로 책을 통하여 접한 불교와 선사상은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존 케이지의 사상과 작품에 많은 감동을 받은 그는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깊은 사유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예술은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역설하며 예술의 확장성을 찾아 그 길을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대학교수로 있는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자신은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학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여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일반적인 경우 한명의 교수는 최대한 20~25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이스의 클래스(독일은 교수제로 교수반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 교수에게 교육을 받는다. 주전공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타 미학, 미술사, 철학 등은 다른 교수에게 수학함)에는 한때 5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시도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 일로 학교당국에 의하여 그는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보이스가 물러난(쫓겨난) 그 자리에 故백남준씨가 교수로 임명되었다. 백남준은 보이스와 막역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물러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백남준은 보이스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보이스는 웃으면서 "그 자리는 너(백남준)를 위하여 내가 그만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하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백남준은 회상하기도 했다. 실제, 백남준이 독일에 정착하고 활동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요셉 보이스이며 백남준은 평생 그를 형님으로 모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보이스가 말하는 예술은 무엇이었을까?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의 선언은 당시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마치 마조도일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를 예술적으로 풀어 놓은 듯한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필자가 미술대학에 재학하던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예술가가 보이스였다. 당시 그의 작품을 사진에서 보고 예술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Wie man dem toten Hasen die Bilder erklaert(1965, 죽은 토끼에게 작품을 누가 설명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행위예술의 한 장면 사진이다. 어떻게 죽은 토끼에게 작품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진으로 인하여 필자는 보이스의 정신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치 선사들의 화두를 대하는 것 같았다. 필자가 선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작품이다. 화두는 살아 있다. 살아 있는 것은 화두를 들고 참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토끼에게 그 어떠한 가치나 존재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를 세계적인 예술가로 만들었다.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상통한다.

즉, 그는 이 행위를 통하여 기존의 예술이나 가치들이 죽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 예술가는 사회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여주어야 한다. 예술의 가치와 영역을 확장시킨 보이스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사회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하는 강연은 주로 사회현상, 정치, 예술철학 등이었으며 특히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가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 교수로 있던 당시 그는 많은 정치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축적하여 학생정당을 만들어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 문화 예술정책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에 녹색정당으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대 처음 불교·禪 접하고 감동
깊은 사유 가지며 작품에 투영
사회 참여 등 예술 확장성 주장
불자 故 백남준과 막역한 사이
무엇도 구속되지 않는 게 '예술'

예술은 사회현상의 일부분이며 일부를 위한 예술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지향하였다. 그에게 예술은 철학이며 행위이다. 다시 말해 철학적 사고가 예술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실천하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모두 예술"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술적' 이라는 말을 자주사용 하는데 주로 새로움, 감동, 조화, 깨달음 등을 지칭할 때이다. 정치가 예술적이라는 표현은 정치가 대중을 위하여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합리적, 논리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수행이 예술적이라는 표현은 어떠한가? 현대의 젊은 수행자들을 보면 참으로 예술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통하여 얻은 진취적 가치를 실현시키며 대중들과 함께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원효 스님의 무애행을 보는 것 같다.

'Infiltration homogen fuer Konzertfluegel(1966, 피아노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은 그의 경험에 바탕 한 작품이다. 그가 부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하여 타타르 지역에 떨어져 원주민들이 동물지방과 펠트 천으로 그를 감싸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신화(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지만 보이스의 많은 작품에 페트(동물기름)과 펠트천이 등장한다. 이는 생존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가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보이스의 작품을 본적이 있는데 이 작품과 유사하다. 작은 나무 세 개를 바닥에 놓고 끝부분을 피아노를 감싼 것과 같은 펠트 천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죽은 나무에 펠트 천을 감싸준다고 하여 그 나무가 살아나거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펠트 천으로 감싸준다고 하여 피아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이스는 시간, 공간, 삶, 죽음, 인간과 자연 등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히 스쳐지나가는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不二)이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분별이 사라지고 오직 순일한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이스가 보여주는 방식은 주로 화두처럼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행위예술, 강연, 설치, 페인팅, 정치참여 등 일상의 예술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는 스스로 기존 예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개인적인 명예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술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현대미술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예술가 중 한명인 보이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사다운 모습을 보여준 예술가이다. 많은 시간 자신이 인식한 내용들을 새롭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그의 모습에서 마치 중생을 무명에서 구하기 위하여 출현한 선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화두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얻어진 깨달음은 다시 현실에서 그 빛을 발현하여야 한다. 저 땅속에 무수히 많은 금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필자가 예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바로 보이스의 영향이 크다. 예술에서 표현방법이나 재료, 기법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도 그 방식이나 방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두가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술은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본래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요셉 보이스가 보여준 예술이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불교 서적
명상 음반
신행 용품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담. 혜산. 대호.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중현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총무원장 산수 부총무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도일. 경담. 도일.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송현.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성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무진 충북교구원장 동행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제주교구원장 효관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4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3436-0796~7 팩스 02)745-1163